東亞日報

今日四面

朝鮮農會에就하야

一

當局의朝鮮産業에對한主義와方針이研究立論으로부터漸次立案實施에드러가게되매前日에有치아니하든여러가지의法律과制令의發布가조갓타나게되다 最近에잇서서重要한것이發布되리라는朝鮮農會令그것이다 此兩者의法令은往前부터研究討議되여오든바昨今에至하야成案이完了되야 共히日本의閣議를通過하야從速發布實施되리라는데 前者에對하여서는本欄에서論評한바有하엿거니와 後者에對하여서는아즉吟味한것이업섯다

二

農會令의支配制限을바든農會로말하면旣히明治三十九年에創立된것으로 그最初의目的은朝鮮의農林業의改良과發達을圖코저하야 本會를水原에置하고 十二個所의支會를置하얏스며 官民間에介在하야機關雜誌發刊, 農事講習, 品評會開催等名實不作의形式的業務를繼行하엿슴에不過하엿고 其組織의內容이라던지 活動이라던지가그다지볼만한것이업섯다 그러나近來에至하야 朝鮮總督府가産業政策에心力을加하는中에도特히農業方面에心力을加하게되엿스며 又는朝鮮에도思想의變化로부터前日에업든勞資間題와地主小作人問題가發生하야여러가지의錯誤할事件이發生하매 當局에서는同會로하여금一方本來의目的이되는農林業의改良과發達을圖케함과 共히他方地主小作人間의爭議協調機關으로出를쓰코저하야 大正十年九月同會의本會所在地를水原으로부터京城으로하는同時에會規의內容에對하야改革을加하야今日에至한것이다

三

아즉制令의發布가無함으로條項內容에對하야詳知키難하나 制令의目的이農林業改良發達을보다도 地主小作人間의爭議를協調코저함에置하엿슬것을推想하는바이니 …

四

朝鮮의都市工業, 商業發達의程度는 아직他國에서施設實行되는工場法案勞働法案을必要라하지아는는지모르나 農産業의地位로보와서나 小作人에關한法案에對하여서는 時急의制定을要認한다 …

動亂畵報【其三】 河南軍負傷兵을靑島軍病院으로運搬하는光景

郭軍의幹部五名

日領事分舘으로逃亡

生死不明을傳하든蔡澤永, 殷汝耕兩氏其他郭軍幹部三名은新民屯日本領事分舘에逃亡한事實이判明되엿슴으로吉田奉天總領事는右五名의處置에對하야外務省에請訓하기로하고 一方張作霖氏는部下의軍隊에命하야 右分舘을包圍케하야前記五名이舘外에出함을待하야逮捕케할意嚮이라더라(奉天電)

噫! 敗將의屍體

頭髮骨을白雪에채워 運動場에一般公開

郭松齡氏夫妻의屍體는二十六日朝부터公設運動場에持出되야一般人民에게觀覽케한다 旣히電燈의準備外지하엿슴으로夜間에도되밀것이다 其屍體를見하면頭髮骨의三分一은白雪로채워잇고 服裝은普通의弁服이다 又夫人은團欒한服裝으로 …(奉天電)

日對張勸告

敗軍問題로

日本政府는人道上張作霖氏에對하야郭松齡氏의一族及部下에向한處置를寬大히하라는勸告하기로決定하고二十五日奉天總領事에게訓電을發하여 吉田總領事는政府의意志를實行코자極力奔走中인바 張作霖氏는部下가反對하야容易히承諾치아니하는模樣인데 吉田總領事는 …(東京電)

捕虜一千歸鄕

國際列車出發과어긋捕虜一千名을싯고 國民軍에編入을希望하는者… 元을주고 …(北京二十六日發)

張馮開戰은明春?

因緣깁흔張馮兩氏

張作霖氏의勝捷한日字와國民軍의天津을占領한日字가偶然히同日임으로此兩者因緣은어듸까지든지戰爭的으로今後此兩巨頭는絶對로妥協의途가업고必然兵火로써相對할것이明白하고確實한情報와四圍形勢等으로綜合하여보면그開戰은明春일뜻하다더라(上海二十七日發)

十四省聯合會議

吳氏漢口에召集說

吳佩孚氏는聯合十四省會議를當地에召集하기를計劃한다는說이잇는데議題는軍隊의統一, 財政上協力, 中央政府의組織改革, 聯合省의軍事管轄區域의協定等이잇스리라더라(漢口二十五日發)

吳氏山海關行

郭軍背後를衝하고山海關에잇든五軍은郭氏의敗戰을듯고奉軍에降服함에依하야吳佩孚氏는武裝을解除하기爲하야昨日同地에向하엿다더라(奉天廿六日發)

戰死者追悼會

郭氏夫妻의死體를供物로

張氏는二十六日午後六時戰地에赴할터이엇스나姜登選氏以下의追悼會를開催키爲하야出發은無期延期하엿다 尙且二十七日의追悼會의供物로는郭松齡氏夫妻의屍體를藝應할터이라하며因하야新民屯도겨우平靜하여젓슴으로二十七日부터新民屯奉天間에汽車를運轉케되바山海關新民屯間은郭松齡軍이一時的修理하고잇슴으로山海關外지의開通은다시時日을要하리라더라(奉天電)

警告解除

四平街에一泊을要求한關東軍과日本軍間에는互相讓步한交涉이成立되어何等不穩의形勢도無하고歸團하게되엿슴은 … 白川關東軍司令官은 …

省民의負擔輕減

民意를尊重하고

張氏今後의時局策

張作霖氏의今後에對한時局策에잇서서는一般에注目中이나張氏는郭氏의事件에依하야서매우反省하는바잇서서 …

李景林軍戰法은奈翁戰法에類似

◇…日船津總領事談

昨夜來京한船津總領事는如左히말하엿다더라 …(北京二十五日發)

政本提携傾向

憲本兩黨默契

貴院規則改正

二十八日上呈

郭軍敗殘兵 極度로對日反感

錦州日人續續避亂

『薄』秦皇島에急行

郭軍敗兵의掠奪로

天津警備中의驅逐艦薄은二十六日午前八時秦皇島로向한바右는郭軍의敗殘兵이掠奪을할念慮가잇서在留日本人을保護하려함이라더라(天津二十六日發)

戰後에一言

奉天에서 鞠琦烈

支離하든奉郭戰은畢竟郭軍의敗北로終을告하엿다 郭松齡氏가被殺되엿다는今日外지도아즉容易히이를肯定치아니하는사람이大部分이다 이는넘우도郭軍의敗北가短時間에엄청나게도腕한外닭이다

郭松齡氏 가張作霖氏의第一用力하야 奉軍數十萬中第一精銳를맨들어 三省兵이다彼하드래도 이것이면鎭壓할수잇다고推獎하든 第五第六의旅團과其外直轄을率하고 …

惡張好郭

十二月二十四日

劍下之魂

上海事件調查書

日英兩委員의報告

憲政候補

豫算委員長 藤澤幾之輔氏

衆議院本會議

直隷督辦에孫岳

陝西督辦에鄧寶珊

◇二十五日에執政令

龍山部隊年內歸還

日陸軍當局談

國軍武裝解除

滿銀對鮮銀

協定成立

官鹽十錢引下

煙草價不平으로

張氏對日感謝

王省長을派遣하야

議會의解散與否

常任委員長獨占如何로決定

普選施行令

精查延期

日閣議決定

朝鮮사람

만여간(?) …

日入超減

結果는良好

大藏省發表에依하면十二月中(二十五日外지)의外國貿易槪算高는輸出一七二,五一七(單位千圓)輸入一五七,〇六八合計三三九,五八五差引出超一五,四四九 …

日政府米買受

日農林省發表

橫說竪說

週間日誌

朝鮮劇場

民立劇團 ◇豫告◇

優美舘

特製 梅毒丸

靈効 淋疾丸 天恩堂大藥房

今年農糧을全部빼껴 歸還해도生途가漠然

掠奪暴行을肆行하는亂兵

도라들가랴는봉텬의피난동포

奉天에서 本社特派員 鞠琦烈 發信

중국동난으로사령(沙嶺)방면에 거류하는동포들이난을피하야봉텬(奉天)으로쫏겨와서보통학교에수용되여잇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 원래사령이라는곳에는 그곳눕목택(納木澤)을중심으로 오백명가량의동포들이 거주하며며개는동서권업공사(東西勸業公司)농장의소작으로이역풍토에서근근히연명을 하여가는형편이엇는데 권란의형세가점점 박하여감을따라 오백명중약삼백명가량의동포들은 이미어느곳으로

텽처도업시 피란해가고

그남아지이백명가량의 동포들은만일을준비하고 나날이위협한형세가닥쳐오는것을 참고잇던바필경지난이십이일 오후네시경에는 대민둔(大民屯)봉군(奉軍)차흥이 패하야다라난 봉군(奉軍)약이백여명이사령에 당도하야 처음에는친구(寢具)와식료품(食料品)등을강제로빼아서가더니그것으로는 만족하지못하다는 듯이나종에는 총과칼로위협하고무지하게 구타하지하며로골뎍으로략탈(掠奪)과 폭행을여지업시함으로 그러케되여서는더건댈수가업슴은뭇외라 필경에는우리의생명까지 모다위태할지경이라하야 지난이십삼일오권한시반경에 권긔이백명가량의동포들이 일계히한곳에모히어서

모다비분강 개한태도로

사령을써나가기로한후 가지소지품(所持品)가튼것들도 가지고써날여가가업시 긔구하나가지지못하고 맨손과맨몸으로서로노약(老弱)을붓잡고는 셔룸에셔지사못치는 대륙(大陸)의찬긔운과 매운바람을무릅쓰고 철철히차흰눈우흐로 적지안케 먼길을거러서 그날밤아홉시경에야겨우봉텬에 도착하야한참동안은어대로갈지 몰라서로투에방황하다금기야 권긔보통학교에림시로 수용된것인데목하봉텬에잇는 엇던단데에서중국떡을조금식 난호아주어그것을조금식먹고 요긔나하야겨우겨우생명을 보존하여가는 형편이다그리고 사령에는 아즉

남아잇는동 포가십여명

이잇다는데 그들은떠날수업시 극빈한동포들로 봉군이아모리 략탈폭행을 심히한다하여도우리는빼앗길 아모것이업다는가련한동긔로 자포자긔에빠저생명도도라보지안코 그와가치위험한곳에남어잇는것이라하며 지금그곳과는 권연소식이돈절하야 그십여명동포의안위가매우궁금하나 알수업는형편이라는데 또한지난이십사일오권열한시경에는 사령에서조금더써러저잇는염가황(閻家荒)이라는곳에거류하는동포 약팔십여명도 봉텬으로피란하야와서권긔이백명동포와가치 보통학교에 수용되여잇는중이다 그들의피란하여온동긔를들으면 그와가치려서지 그촌락에는중국병뎡들이 들어오지안엇섯스나 그갓가운촌락에 이미중국병뎡들이 다수히침입하야

략탈과폭행 을자행하는

중이엇슴으로 미구에그의협이 염가황에도밋칠것을 예측하고 차랑히그촌락을떠나역시아모것도모가지지못하고 공권으로 지독한치위에헤매며 황고둔(皇姑屯)에서하로밤을지나고 다음날 봉텬에도착한것이라는데지금그보통학교에는 약삼백명가량의피란동포들이 참담한형상을일우고잇는중으로 그들은금년농량을몰수히 빼앗기엇슴으로 장차도라가도살아갈길이망연하다 한다

우리의受亂慘狀을 故國兄弟께傳해주오

피란동포들의설혼사정

권긔피란동포들을 위문코져수용소로차저간긔자(본사봉텬특파원)에대하야 그들은모다창황한안색으로 우리절믄사람들이야 아모리고생을한다한들 무삼상관이 잇겟슴닛가만은 래년추수빼까지겨우죽지나안코 살아갈양으로 그나마지연노화됫던금년농작물들을한알도업시 권부빼앗기고말엇스니 장차이압흐로는무엇을먹고엇더케 살아가야할지이것이실로 긔가막히고딱합니다 그러나아즉거긔까지생각이도라갈 여유가업스며 매일가장긔는보시는바와갓치늙은신는이들과 어린아해들입니다 써날때에 모것도가지지를못하고 빈몸들로쫏기여왓슴으로 지금곤난막심한것이 여간한두가지가아니며 그무서운치위에사족이어러싸지는듯이 벌벌썰며 이어오면서도 흑은중국병뎡들이뒤로우리를쫏치오지 안나 또는 길가운데서도그가치무섭고 몸살스러운병뎡들을만나지나 안을가하는태도로 숨이터에쫏겨오던것을 생각하면다시신물이납니다 바라건댄 귀지(貴紙)를통하야 우리들이이러한청든고국에 계시는 곳에서얼마나고생을하고잇다는것이나 내디동포들에게면해주십시오 하고말씃을 흐리게 맛치며엇던 시비갓한 눈물을먹음더라

慰問委員 派遣中止

피란동포구환으로 봉텬의 피란동포를위문하기위하야 이를 위문코자 다수유지가 회합하야 [illegible]

盜賊은依然橫行

각기도라가랴는피란민들 도라가도압길이망연하다

【奉天翰特派員發電】 피란동포현주디(避難同胞現住地)에는사람들이 업는것을긔화로종도적들이 횡행하야 쌍속에무더두엇든 가산집물까지도죄해가는터임으로 한시밧비다시도라가가산을찻고자 하는사람이만흐며보통학교에 수용되엇든사람들도 작이십칠일에는모다출발하기로 되엿는데 더욱어패잔병(敗殘兵) 또는승긔를하얏다고하나귀향이 업는중국병졸들의마뎍가튼 행동은의연히게속되고 권디 뒤치닥거리를하기 위하야인부로 징발된 [illegible]

[illegible] 봉텬피란민동포위원회(奉天避難民同胞委員會)는 [illegible] (봉텬)

商人十七名을 稅關에서拷問

밀수입자와련락잇다고 商人들은知事에嘆願

의주(義州)에서 포목상(布木商)하는 홍석긔(洪錫基)외십칠인의련서로 평북도지사와군수와세관당과 경찰서당에게 탄원서(歎願書)를 지난 이십일일에데출하고 그들은지금 장태를위하야 매우념녀하는중이라는데 그내용을들으즉 권긔십칠명의 포목상들은 그동안의주군의주면동부동 김태경(東部洞金泰京)이란사람의 물품을사서소매를한일이잇는바 십여일권에 권긔 김태경이가 불행이 주단밀수입(紬緞密輸入)혐의로세관의손에 데포되여 필경문부를검사하며 엄중히취조한결과 권긔십칠명과 거래한증거가 낫타나매 세관출장소에서는 십칠명을호출하야 혹독한고문을하며 밀수입의혐의를밧고 삿느냐고 취조를하엿스나 [illegible] 후 자긔들의 마음대로 작성한 [illegible] 십칠명이 별수업시 날인을 하엿는데 [illegible] 개되면 의주상업계는 아조파멸되는뿐아니라 사실은 내용을모르고산것이 분명한데 고문에못견듸여 그들의 하라는대로한것이 참을수업시 분하다고 권긔네곳에 탄원서를 데출한것이라는데 사건이 장차엇더케될는지 일반은 매우 주목하는중이라더라(의주)

店主讓步로解決

군산파업사건

긔보=군산뎡도로동회(群山鐵道勞働會)에서운송뎜조합(運送店組合)에 임금인상을요구하고 동맹파업을 단행하얏든바 필경이십오일밤열시경에운송뎜조합에서는 로동회측에대하야 양보하는태도로 요구하는대로 매가마니에일권식주겟다고쾌히승락을하엿슴으로 파업은 무사히해결되엿스며당일에구금되엿든자들도 즉시방면되엿다는데 동회에서는그이튼날이십륙일부터 종업을시작하얏다더라(군산)

은 룡백여명보에 달하엿다는데 태남주(台南州)방면으로도련소될렴려가잇다는바 근래에듬은큰산화라더라(대북뎐보)

江陵에大火

지난십팔일 오후열한시경에강릉읍내대정뎡리(江陵邑大正町李成七)의집에서 불이닐어낫는데 마츰그날 바람이 몹시불엇슴으로 잠시동안에 이웃집에 연소하야소방대의 활동도 효과를내지못하고 그만사동을 권소식히고 십구일오권세시경에야 겨우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삼천원에달한다하며 원인은연돌에서난것이라더라(강릉)

區長이洞財橫領

발각되야취조밧는중

강원도양양군 현남면권포매리 (江原道襄陽郡縣南面前浦梅里)리종호(李鍾浩)는대정팔년도부터 동리구장을 임명되야사무를 보아오든바 요사이에와서 횡령사건(橫領事件)과사인(私印)위조한사건이 탈로되여 지난십칠일경에 소관인구경찰관주재소(仁邱警察官駐在所)에잡피어가서 취조를밧는다는데 이제그내용을듯건대 다음과갓다더라(양양)

一、대정구년시월경에그동리교량(橋梁)가설할때에다리판재하기위하야동면국유림에소나무두개의대금을사긔한것

一、대정십일년에 권포매리삼십구호에 납세(納稅)조합을 설립하고 매호에 베한말식수합하야 합계십구두를 구량에 게 보관하엿든것을 사복에충당한것등

主人의抑壓과虐待에 呻吟하는二女婢

황해도은률군모부호집에 견마와가든신세의두녀셩

愛兒의生命外지主人이?

인권을존중하야 노예의제도가 폐지된지오래된 오늘날에잇서서도 황해도은률군당련면동부리(殷栗郡長連面東部里)에 잇는권모(全某)라는부자의 집에는 의구히오월(五月)(一五)과동매(冬梅)(二四)라는 두녀종=비=종은정도 불으지못한다한다=이 잇서 사람으로서는견대여나갈수업는 가즌학대와 견마가튼대우에 신음하고잇는중으로 새로는 그에대하야동리에서큰말썽거리가되야잇는 괴상한일이잇다한다 그두녀자가 처음 종으로들어가게되기는 오월은지금으로부터 약사십권에 을빛엇든덴자에게서 돈오백원에사와다하며 동매는그의어머니가본래부터그집의종이엇슴으로

역시종의신 세를상속한

것이라는데 원래아모리청춘의 열렬한생각으로 이성을사모하는시긔가온다하여도 자긔마음대로남편을 엇을수가업는형편임으로 오월은재작년에동매는 작년에아비모를아해를낫케되야 그후로그두가련한녀종에게는 아희나 한다는리유로구박과학대가날로심하여지어 모진채죽질이업는 날이업섯스며 심지어먹질안식감금을하야 혹형을주는형편이엇다는데 삼년권오월의나흔아희는아들을 나하노코도모자가서로대면조차 변변히못하야 갓나흔귀여운녀아를 젓한번 쳐차커먹이지못하고 음침한방구석에항상혼자 노하두어 그녀아는도모지

태양의빗을 보지못하고

자라낫스며 작년에는 그아해가 해병을보고 눈을또지못한일도 잇섯다하며 이러하야 결국그가련한어린생명은 병에걸려참혹히죽어버리매 오월도무의식뎍의반항심이극도에 달하야작년추월어느날밤에도망을하다가 다시붓잡히어 그때반생반사의혹형을밧은일도 잇섯다한다 그리고동매는 작년십월경에 나흔아희를 눈물과구박가운데서 길러오던중 금년 음력 구월구일에별안간 그주인이자긔네산소에종단녀오라는 명령을밧고 그아해를혼자 두고 갓다왓더니별안간사랑하는 아들의간곳이업슴으로 그후그아해의거처를주인에게 눈물석거물엇스나 종시그아해는 찻지못하고

지금죽엇는지 살엇는지

그생사를아지못하고잇는중 이라는데 이에대하야 요사이 그동리에서 뎐하는말을드르면 그아해는 너자가안이오 사나희임으로 너자가트면 장래에질러서 도동을만들수가잇스나 남자이기빼문에 후일 종으로삼을수가업서서 동매의어대 모르는 틈을타서어대로빼 돌닌것이라고하는데 목하 그아해가 과연죽엇는지 살앗는지 알수업는형편임으로 동매는 매일남모르는눈물로세월을 보내는중이라한다(계속)

兄弟強盜逮捕

고양숭인면에나타낫든자 동대문서에서톄포하엿다

지난십이일에 고양군숭인면제기리(高陽郡崇仁面祭基里)일백사십팔번디에사는서길룡(徐吉龍)의집에두명의 강도가침입하야 현금팔원을 강탈도주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래소관 동대문서에서는 동사건에종요한 단서를어더가지고 범인을 [illegible] 계속활동을하든중 이십륙일에 동대문밧숭인동(崇仁洞) 부근에서 [illegible] 이라는자를 데포하야 엄중히취조를한후다시 그의형되는 김일환(金日煥)(三二)을또데포하야취조한결과 그강도사건의 진범인으로판명되엿다는데 그들이잡히게되기는 밧게서 할두루막이를넘고 망을보고잇든강도 김성근을 피해자가뎐차에서 발견하엿스나 그쌔는 [illegible] 무심히 지나치고 [illegible] 회사에단니는관계로동뎐차의차장에게 그자의소재를 탐지하고 그와가치잡게된것이라는데그형 김일환은 강도죄과자로 강도수단이교묘하야 그날밤에도 아우를다리고서길룡의집에드러갓다 나와서는 곳주의(周衣)를 밧구어입엇든것이라는바그들의형데는 자칭목수의업을한다고하나 실상은 강절도로 업을삼든모양이라더라

大邱強盜逮捕

근래에드믄강도범인

이십오일밤 대구경찰서 에서는 번발경계를 하든중부내 시장정(市場町)방면에서 김(金)모란강도혐의자한명을데포하야 목하엄중취조를하는중이라는데 죄도만흔모양이라더라

覆面短刀強盜

대동군에또낫타나

평남대동군 고평면서성리(平南大同郡古平面西城里)에사는최봉조(崔鳳祚)의집에 지난이십삼일오권 [illegible] 강도 [illegible] (평양)

十五年言渡

대구일인살해사건

대구부외 비산(飛山)살인강도범 일본인 삼국차랑(三國次郞)은 경남의녕군(宜寧) [illegible] 의 살인사건 판결 [illegible] 이십륙일오권 열한시 대구디방법원 이호법뎡에서 [illegible] 재판당으로부터 검사구형하엿슴에 대하야 징역의 언도를하엿다

高興서도 債鬼刺傷

가혹한수단에분개해

지난십오일 오후여섯시경에 전남고흥군 남면과역리(全南高興郡南面過驛里)에 [illegible] (고흥)

婚需品差押當하고 債權者를亂刺

살인미수죄로취됴밧는중

전남고흥군남면과역리 (全南高興郡南面過驛里)평사원 김락안(金樂安)은 살인미수죄(殺人未遂罪)로 방금고흥경찰서에 데포되여 취조를밧는중 이라는데 그내용을드른즉 권긔김락안은 [illegible] 미수죄로취조를밧는중이라더라(고흥)

遭難漁船 百卅五隻

어대진연안서

[illegible]

自己牛車에轢死

원산군 [illegible]

평남강서군 [illegible] (원산)

鐵道局에猩紅熱

목하원산 [illegible] 원산(元山)철도국관사에는 시내동산 [illegible] 다수의 환자가 발생되야 [illegible] 잇다더라(평양)

圖書館休館

시내인사동경성도서관(仁寺洞京城圖書館)에서는 년말년시의휴관으로 금이십팔일부터 오는일월오일까지 구일간 휴관을한다더라

日本劇場燒失

이십오일 새벽두시 십분일본명고옥시 외구옥뎡(名古屋市御園町) 사뎡목 극장 신세좌(新世座) 안에서불이 일어나 약사시간만에 권소되고 진화되엿다는데 그근처 데팟쇼 삼성은행(三井銀行)등유수한건물이잇섯슴으로 큰소동하엿다는바 원인과손해는 아즉불명이라더라(동경뎐보)

同情募集講演

조선녀자고학생상조회(朝鮮女子苦學生相助會)에서는 긔숙사(寄宿舍)를확장하야 보다 녀자사회를 위하야 만흔활동을하려고 하나 항상물질이용서치안음으로 무한히 고민을늣겨오든바 조선녀청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간부 뎡종명(鄭鍾鳴)녀사와 강아그니아(姜)양 이발분하야 이십오일에 권라북도금산(全北錦山)방면으로 동정금을 모집하려고 강연을떠낫다더라

◇휴지롱

지난이십사일열시경에인천부외리(仁川府外里)엇던술집에는 남복을한 녀자가 술추렴을하다가 체순하든 경관에게발각되엿다고 ▲그는인천부률목리(栗木里)구십번디 김모(金某)의커강동욱(姜東玉)(一七)으로 ▲최근에내외간불화로회위에 단발을하고 난봉을부리는것이라는데 ▲그는순사에게록록한설유를듯고도 그잇흔날 밤에는 말숙한양복을입고 신—술집에 나타낫섯다고 ▲화—ㅅ김에단발은 모르지마는 그러케술까지마시면봉이이러나지안을가?

今月二十九日부터 三十一日까지三日間本紙四面

世上을騷亂케하던 蓮池洞拳銃事件

有罪로豫審終結決定

공판은일월초순에열닌다

지난칠월삼십일밤 아홉시경에시내련지동(蓮池洞) 오십번디홍익표(洪翼杓)의집에서 군자금일천원을 청구하다가미리 그집안에 잠복하여경계하든동대문경찰서 형사대의 손에포위되여 공범자인 김진옥(金鎭玉)만잡히고 리광진(李光鎭)은 가것든권총으로 형사박용덕(朴容德)을사격하야 중상을당케하고종적을 감추어 일시세상을소란케하던 그홍영뎐과김중성사건은 그간경성디방법원 예심에붓처엇든바 수일권에 예심이종결되엿스며 경성디방법원 공판에붓처엇는데 데일회공판은 정월초순에열리리라하며 예심결뎡서는아래와갓더라

豫審終結決定書

本籍 京畿道京城府遊木町二百三十八番地 本職木手 洪永傳(四二)
本籍 忠南靑陽郡定山面西亭里四百八十八番地 現住 咸南甲山郡同仁面合井洞里 無職 金鎭玉(二四)
本籍及現住 咸南端川郡波道面松平里八十五番地 [illegible] 金仲聲(二四)

右被告洪永傳에對한 橫領強盜未遂強盜及 強盜傷人敎唆被告金鎭玉에對한 強盜未遂強盜傷人, 被告金仲聲에對한強盜未遂被告事件의豫審을 맛치고 終結決定을左와가치함

主文

本件을京城地方法院公判에附함

理由

第一 被告洪永傳은 [illegible] 九十二番地文殷圭의 依賴를바더 大正十三年十月七日頃 公州地方에出張하야 小作料百五十石을바더가지고 [illegible] 百圓을 [illegible] 金光鎭과共謀하야 그金額을北滿洲方面으로 携帶橫領하엿고

第二 被告洪永傳은李光 [illegible] 方面에移居할費用을 엇기爲하야 假政府員을標榜하고 十四年七月五日午後十時頃 京城崇仁洞百八十七番地 尹東根方에이르러同人을 그附近石工場에誘出하야 各自前後로拳銃을내여밀고 우리는假政府命令에依하야 서울에出張한者로 內査한結果當身에게는 五百圓을出金할資力이잇는것이 判明되엿스니 提供하라 萬一不應하면 無事치못하리라고脅迫하엿스나 맛츰所持金이업서 目的을達치못하엿고

第三 被告洪永傳은犯意를繼續하야李光鎭과 被告金鎭玉과金仲聲이 東京으로避身갈資金이 窮乏한 以上 우리와가치共謀하야 不逞團을標榜하야 強盜를하자고慫慂하여서 同意케하고 京城府蓮池洞百十番地 洪翼杓方에強盜로 闖入하자고發意하야 被告金鎭玉,金仲聲, 李光鎭은 大正十四年七月二十八日 午後九時頃同家에到着하야 金鎭玉은同家附近石橋上에쉬우고 金仲聲은 탄알을재운拳銃을가지고 同家大門안에서서 各各망을보고 李光鎭은同家室內에侵入하야洪翼杓에對하야 自己는 그곳에서드러왓는데 證據는이것이라고하면서 彈丸이재인拳銃을내여보히며威脅하야 金一千圓提供을強要하다가 同月三十一日午後七時頃을期하야 그돈을 밧으러오기로承諾을어든後 被告金仲聲은발굼치에 隱가나서못가고 洪永傳과李光鎭은金鎭玉에게對하야 李光鎭과가치 돈밧으려가라고勸誘하야承諾케한後 金鎭玉金光鎭은 그時刻에各各彈丸을 裝塡한拳銃을가지고 洪翼杓家에이르럿슬때에同家에는 朴容德外三名의警官이 潛伏警戒하고잇섯슴으로 其目的을達치못하고被告金鎭玉은잡히고 李光鎭은朴容德에게拳銃을發射하야 右臀部에 一個月餘를治療할盲貫銃創을當케하야 同人을惆抑하고틈을엿보아逃走한것이다(以下略)

日本議會를機會로 義烈團員潛入

중대한음모를계획하고저 그외도다수한사람이침입

警視廳憲兵隊大活動

중국상해(上海)에잇는의렬단원 진모(陳某)와남경(南京)에잇는 오장운(吳將雲)등두사람은얼마권에 상해를것처 일본(日本)에 잠입한형적이잇다는 밀보가상해령사관경찰로부터동경(東京)경시텽에 도착되는동시에 조선사람의불평 객들이금번 일본의회개회중에 습격하기 위하야일본에드러가엇던 음모를 계획한다는것을 탐지한 경시텽내선계(內鮮係)에서는의회개회중에는요로 벼관들의 신변을엄중히경계를하게 하는외에 특히동경(東京)역을비롯하야동경의관문이되는 각역두에는 청사복순사들을 배치하야 엄중한취테를 하게 하는동시에각각 관내의조선인들의 행동을 감시케하리라하며 헌병사령부로 부터도각디헌병대에 주의를 발하야 만일을경계하도록하엿다더라(동경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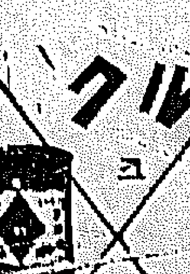
高雄大山火

아즉도타는중

이십사일 오후세시경에 일본화태고웅주긔산군(高雄州旗山郡) 태양식산회사(太陽殖産會社)조림디(造林地)로부터 불이이러나서 불길은점점맹렬하야 이십륙일아츰에이르러서도진화되지못하고 아즉까지 연소하야 그면적

新着品特價大賣出

各國時計 眼鏡 貴金屬 商 金光堂時計舖



最良의乳母 ヒシ印ミルク 히시표밀크

特告 歲暮景品附大賣出

一圓마다景券一枚式드리며 其品外에每一圓마다(靴一足)에贈答品을添呈합니다 品質이優秀하고價格이特低한靴는! 學友洋靴本店 第一支店에 高級防寒靴製造합

肉體의淨化 精神의美化 毒掃丸

鳳山炭特約店 商會

撫順炭 官許 二穴 三穴 煉炭 內地炭各種 木炭 薪 都散賣 南大門驛 貯炭場

撫順炭塊炭 一噸 二〇圓五〇 南大門外御成町入口角

남녀가약혼할때에 법률상등긔를해
◇……세계에례업는법률

◇미국『미시간』주에서요사이 이상한법령을 내엿다고한다 남녀가 결혼약속을하거던곳 법률상인가를 밧는다는것이다 지금까지는 결혼식을이룬후에 부부로써 법률상수속을하게되엿지마는 금후부터는 약혼을할쌔에 반다시 법률상등긔를하라고하는것이다 그러치 아니하면 약혼하엿던남자가 파약을할쌔에손해배상의책임을지부에서 질수가업다고 함이다

◇이것은세상 에례가업는진귀한 법률이다 이러한법률내기가지에는 여러가지 리유가 잇섯다 미국에서는요사이 커녀들과 파부들이 걸핏하면『약혼파약손해배상청구』라는 소송을이르커 대다수는 녀자편이 이기는것이다 엇던때에는『뜻밧긔로몬드』라고하는사람이 엇던신문에서사랑의시한편을읽어서『우일자는하는커녀에게 아모심부업시 댓새곳쌔로 우편으로보내엇다 그것을리유로그처녀가손해배상소송을니르커우편세를아울너 자컨돌이컨을밧어버렷다고한다

◇시하나갑시 참빗싸기는빗싸다우리나라 불량청년들은커녀에게엽서쓸쓰기야여반장이오 그런일로해서 소송을당하는일도업다 그들은미국에 태워나지아니한것을 행복으로 알아야만할것이다 네우에서 쌰넷에게 파약손해배상소송을 이르커 이권오백불을 감작가치밧어내엿다고한다 그런데 그재판에 녀자편증인으로는 오즉 그동생 제집애 하나이엇다고한다

◇그보다도더 놀나울만한일은 피아트리스·리히텐돌푸라는녀자의 사실이다 그녀자는 싼폰이란는의사와 서로사랑하는사이엇다 서로 칠십여번 서신왕래를 하엿는데 싼폰은편지할쌔마다 도로보내기를 청하엿고 그녀자는그대로하엿다 그러나 그녀자는 무슨생각을하엿던지 편지를도로보낼쌔마다 숙련한사진사를다려다가 편지를 일일히박힌다음에야 보내엿다 마츰내그두사람은 파약이되엿다 그러나그편지의증거로 그녀자는훌륭하게 이익이고말엇다

◇편지할쌔마다 증거를두지아니하려고 도로보내라는남자도 무서운사람이오 일일히 사진사를다려다가 증거를남겨두고야 도로보내는녀자도 지독한녀자이다 넷날혼인은부모와부모사이에혼인이오 부모와부모사이에언약이라하여요사이사람들은 흔히비웃는다 그러나 이우에말한바와가치당사자끼리의언약도 별로신통하지 아니하며오히려 너모노골뎍이 아닌가하는감상이이러날뿐이다

時事一束

全州第一公普生美擧

전주데일 공립보통학교(全州第一公立普通學校)사학년생도 박래주(朴來柱)와그의아우는 가세가 빈한하여 요사이 갓치치운거울에도 양말을신지못하고 매일치위에 떨면서통학을 한다는데 이것을 본동교의학년 생도들은어린가삼에 동정하는마음을금치못하여 너나를다토아 멧십전식돈을내여이불상하고 가련한두생도에게광목으로 솜옷한벌식과양말과 학용품의얼마를따뜻한마음으로도아주엇다하며 또당시 포목상 김현섭(金顯燮)씨는그어린아희들의 가륵한태도에감동되여 포목을실가로주엇다고합니다 권주사회는 요사이이 아름다운사실에대한 칭찬이자자하고한이야기거리가 되엿다고합니다 (전주)

東京우리文學會

동경에게신라빈(羅彬)량주동(梁柱東)진댱쥰(秦長燮)씨등의발긔로『會員間의友誼를敦睦하며文學의知識을硏鑽하여써힘잇는우리文學을建設코저』하는목뎍하에 동경우리문학회(東京우리文學會)라는 것을만드럿다고한다(동경)

創作 眞珠는 주엇스나 (七)(一)
廉想涉 作

六——二

『글세 어대로갓고가라고이러세요? 가치가시겟다면 지금이라도가지요 어차피에 여긔는오래못계실테니까 인천으로 가치가십시다 그병에는 바다스가가데일조흐니까!』 문자는이런소리를하고우서보엿다

『가치 어대간단말슴이야요? 난 모르겟소이다 마음대로하시죠』하며효범이는역정을내고 누어버렷다

『그러니까요 데일은케가엇더케든지 잘조리를하게 마음을편히노코 병에만전력을쓰세요』하고 문자는 병인의식후약을 차ᄉ종에쌰라서노앗다

『그러면 엇더케하시든지상관을아니할터니 래일부터 차저오시질마세요 그리고 누님집에서도 곳나오세요 문자씨나M씨를위해서만이아니라 나를위해서라도 얼맛동안 교제를끈코누님도 차저단니시지마러주십시요』

효범이는다시녀어나서이런소리를하고 문자가 들어주는양을 마시엇다

『그럼어대로 가라는말슴애요?』

『그럼웨나더러무르세요』

효범이는 가라안진소리로 핀잔을주엇다 문자는 고개를숙이고안첫다가 무슨결심이 섯는지 는낫빗으로

『어데로가십시다! 인천으로나 도실이니 남쪽으로 나려가서바닷가로가십시다 우리들끼리……그밧게업스니까요』하며 애원을한다

『아뭇튼경우를 생각해보고말씀을하세요 그것은 권커내는길이아니라 파멸의길인줄을 웨모르세요 나는누구하고도 가치잇슬수업는사람인것은 아시겟지요? 숨이썰더썰리하는 나가튼 어린애를쏘차단이시다가나종에 엇더케되실것을생각이나해보고 그런소리를하십니까?』

효범이는녀자의마음을모르는것이 아니요 그러한 고마운말한마듸라도 들려주는것이 얼마나 위안이되는지몰랏다 리이눈을 감는순간이 잇다면 그순간은 문자의품속에 안기나 문자의온령혼을 완전히점령하는 행복으로 채울 고귀한순간일것이나 효범이는 차뎌진리지(理智)의판단이업시는 숨한번도 편히쉬이지못하는불행한사람이엇다

『파멸의길이되면 파멸의길을 용감히것지요! 어대까지든지앗기고 갓주어갈만한 귀한생명을 가진것은 아니애요 병을붙싸바서 흥복숨이야요 아모래도조청이십니까? 그게걱정이되면벌서인천나려가서 신문에 오르나리지도안어겟지요아모일도업것요』

문자는귐컴히분이되면서비참한낫빗으로 남자를 다시한번치어다보고 고개를 떠러트렷다

효범이는무어라고대답을하여야좃흘지몰랏다 자긔자신이녀칭리유가 어대잇는지 암만해도알수가업섯다 아니그보다도 문자의마음이 이처럼간곡하야진 ᄭᅡ닭을 의심치안흘수업섯다 M에게로도 갈수업고학교에도 다시발을드려 놀수업슬뿐아니라 집에도 면목이업다는 난처한커디에빠진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케오늘일이다 신문에떠들기전에도이런무서운병에걸린자긔를 찻는라고 일주일동안이나 서울에잇섯다는것이효범이에게는알수업는일이엇다

『모든희망을잃어버린 나를위하야 보람업는희생을 하실까닭이어대잇세요? 앗가운청춘을못도아서 인생을향락하야 주십시요 그것이 인생으로서 할의무요 또당신을위하야 살라는 사람—M씨에게대한 의리를 저버리지안는것입니다 인생을향락한다거나사랑에순실한다는것을편잘못생각하는사람도잇지만결코그런것이아니얘요 그래서두분이충실한생활을 하시고 사회의큰일군이 되십시요 나는모든희망을끈흔폐인입니다 그런 공연한소리를 하서서괴롭게 구시랴거든어서곳 가주십시요 당신은어떤경우든지 M씨를 니저버려서는아니될 의무와 책임이잇는몸이아니십니까?』하고 효범이는다시누으며 눈을감아 버렷다

가만히귀를 기우리고 안젓든문자는 숨이맥히는 한숨을겨오쉬이고초조한듯이 알의ᄉ 입술을질강질강 씹고만 안젓다 문자에게 무엇보다마음이 쓰리게괴로운것은 효범이의 입으로M의이야기를 듯는것이다 합창이되어가는 부스럼딱지를 쎄이는것가치 근질근질하고도 알흐고쓰리엇다 그의얼굴은 정열과고노에뒤틀리엇다

學窓散話
『되무덤이』에서(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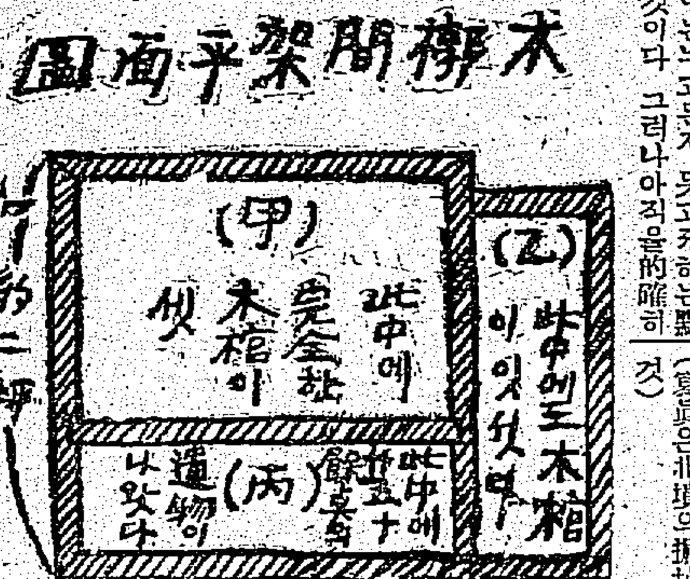
◇木槨의크기는 안목으로約二坪四面이오 집히는(뒤에말함)天井下端으로 바닥의上端까지約四尺에不過하니 이집히는從來에想像하얏든것보단 썩얏흔것이다 그런데 집옹이고 周圍의壁이고를 죄히 집옹된角材와비슷한나무로써 가로차하야맨드럿스며 바닥도집옹과가치角材를죄죄히 맨드럿다 四坪을되는壙이 縱과橫으로나가 二個의壁으로써 大小三個의室로난호엿다

◇最初에나온 角材로맨든집옹은 그角材와直角을 일우는얇은 가로질은그비스름한角材한個가잇서 밧쳣는데이들世가든 角材의밋헤 天井을알앗다 그 天井은집옹과同種의 木材인厚板을느려노흔것이니 그板의厚는約二寸餘이다 이板의方向은 집옹과가치 南北으로건너질르고 天井의下에다시들世한아가 그것을밧첫다 이러한天井은當初에槨의全部를덥헛섯든것이 毋論이지마는 前에적은二室中의 中小二室(圖中의乙과丙)의 天井은만히腐朽墜落되여서 이二室의바닥에는 泥土도뻐陷入하얏스며 다행히大室(圖中의甲)의天井은 全部가完全히保存되엿기때문에 泥土가別로陷入되지아니하얏섯다 甲室에木棺三個와 乙室에는그것一個가들어잇섯는데 周圍의壁의形址로보건대 甲丙兩室이몬저되고乙室은나종에添加된듯하니 그것은甲丙兩室의壁인角材의끗처圖에示한것처럼 죄히四十五度의角을 일우어서四隅에서合하엿슴과 甲室과乙室과는조금귀가 맛슴으로써 想像된다

◇木槨은上下 左右 前後가다 右와가튼 角材로密閉되어잇슴으로槨內의 遺物을取出하야 調査하자면 아모래도 집옹을 벗기고 天井을헤쳐야하게 되엇다 그래서 수番의發掘事業이 끗난뒤에는 木槨全部를完全히復舊할수잇도록 寫眞을박는다尺度를 實測한다 또寫眞으로未洽한點은 實測으로써落匪不差한스케치를 하는等準備作業을 遺漏업시한뒤에 비로소집옹의 角材를벗기게 되엇다 角材는 二千年의 歲月을지냇지마는 아직도매 堅牢하기때문에 擴外로 쓰집어내여도조금도 破壞할처경은 업섯다 다만원처 二千年間을에 장커잇섯든것이매 급작스레乾燥식히면龜裂이생기기가쉬움으로 쓰집어올린角材의위에는 즉시물에축인거적을덥고 또그위를天幕用의厚布로덥허두고 각금들추고물을거적에주어 乾燥를막기로하엿다

◇二千年間土中에무처서 能히腐朽를免한나무는 무슨나무일가 이는누구든지 듯고저하는點일것이다 그러나아직을的確히 무어랄수가업다 木材商의본이는버개白檀일듯하다하며 또어는專門家의말에도 針葉樹에屬하는것임은 분명하다고하엿다 (寫眞은北墳의掘址를데미다본것)

木槨間架平面圖



◇樂浪古蹟畵報(其十一)◇

隨想 乙丑年을 부여잡고
孤星

歲月이덧업슴을이제야새삼스러히늑긴바도아니요 또한하고만흔 世上사람가운데 내홀로가 늙어감도아니엇만저문해를作別하고내키지아니하는 새해를마지게되니 새로히서려오르는 萬斛의情緖를吐露할곳이바이업다 하물며『乙丑年』을보냄이랴 나의스물네살이라는平生에다시업슬貴한나이를마지한것도乙丑年이요 이悲慘한나이를永遠히 葬事하는것도乙丑年이다

世上에는痴가드를고나의一生을두어다시업슬 앗가운幸福을 누린것도乙丑年이요 慘酷히도 그幸福은짓밟혀永遠히사라저바리고다만寂寞한殘骸와追憶의悲懷가罪노도록이꿈물차고들을쓰라린傷處를바든것도乙丑年이다 석라서 아즉도밝고터울든나의 피를더럽피고어름에정안것도 乙丑年이다

참된良心을 참되게現實식혀 볼것도乙丑年이요 狡猾한打算의處世術을 배운것도乙丑年이다 쓰고毒한술의 감흔맛을 안것도乙丑年이요 그술에게속는것을안것도乙丑年이다

돈이더러운것을 前에도말고는하엿지만 果然더러운것이라는것을깨닷은것도 乙丑年이요 더러우나마 不可不잇서야겟다는것을깨切히 늣긴것도 乙丑年이다

나에게恨만코情깁흔乙丑年이 乙丑年아 너는나에게罪가깁다 그러나나는너를 呪咀하거나 원망하지도아니한다 도리혀너를그리워하고 思慕할것이다 두고두고기리기리 잇지못하여할것이다

因緣깁흔乙丑年아잘가거라 둥근圓週우에서 너는뒤로가고나는압흐로가고 다시 맛날길이바이업다

너는無窮한生命을가진너라 다시六十年만지나거드면 이곳을 다시도라오리라만은 나는거의 半生을다사랏스니 너도라오기를기다릴길이망연하다

日後다시이쌔에도라와 靑山을밟다가 나의白骨이발뜻헤채이거든 잠간동안거름을멈추고

靑山은 依舊한데
歐陌어데 가시오고
靑春紅顔 웃음이런가
白骨殘骸 無心커라
아마도 可憐怨魂은
九天으로

이한글귀를읇허다고 그래도그쌔에 나를생각하여 눈물을쓰려줄무엇은 너뿐일가하노라

잘가거라 乙丑年아 가는너를부여잡고 목이메이고눈물이말으도록 울고도십흐나목이메인지 오래요눈물이이미말넛스니 그도하릴업다

잘가거라 네가간들 恨만코情깁흔너를 내가엇지이즐소냐

나는이길로고臨흔이生命을잇글고 가는곳까지가지는곳까지 가보려한다

그러나간다고간들가는그곳이 어델는지 鐵업시자랏다가알흐로모진現實에희달니면서一秒二秒하로잇흘일年잇해지나는동안에 또실혀도한살두살나이를먹어 하고그것을거듭하는동안에 보기실흔흰터럭이날니고 그러다가마즈막靑山의한모룽이에數만흔白骨을감추고잇는廢墟의理葬地가나의尙하고가든그곳인가!

나는누구에게무슨말을듯고이世上에를나왓슬가

아모리생각하여도人生이꿈임은分明하다 宇宙는無限히큰데 五尺의저는몸이 歲月은無限히긴데 六十年의짤븐동안에 무엇그리하여 일커이잇스리오 설사 膽大히도품고잇는나의그理想을實現한다고하자 實現을한들靑春은다가고늙어싸즌나에게그러한것이무슨滿足을주랴 어지인나의白骨에게무슨滿足을 되리오 滿足이될것이라하면後生의것이요 滿足을늣긴다하면 多少라도사람으로써生存하여잇는동안에누길뿐이지

그럼으로世上은天才와英雄의 獨舞臺로아니볼수가업는것이다 그럼으로衣食住를不得已한手段으로삼고그에超越하야遠大한 理想을바라보고나아가는사람도 참혹하거든하물며먹기만에입기만에살기만에눈이어두어알뒤를 보지못하는數만흔人生들이얼마나참혹한가 이것이모다人類의 弱한點이요人間性의悲哀로볼수밧게는다시업는일이다

첫닭이울고時計는쇄시—乙丑年도거우 여섯날을남겨두고다저릿엇다

因緣깁흔乙丑年은그만가고만다

아-乙丑年 乙丑年

(乙丑十二月卄六日첫새벽에서)

詩歌 가려는벗들에게
李永根

서리마즌 아츰저녁에
맥풀리신 지는닙새처럼
알들히 쳐드린 넷벗들은
하나식둘식 말업시떠러지며
향훈에놉흔 이마음이시들고
안타갑은심청에 휘매는
이따우의는 내그림자뿐이
망당히남어 나를따른다

감싼인정을 한보작이싸든벗이어
여태쌔지 복면속에감춘그대의
얼굴의컹데를 입술을드러내라
상한심청의 속드리백힌
눈의딸린 빗따른동자를쎄여버리라

그리고나의가는 밟자죽마다
흘리숨인 모래알갱이우의
진리를갈구한의 애타던친
주홍빗 붉은피바라보라

고쳐이 내마음을휩싸고돌며
감감한절망의 어둡음이아무리
내발울치를 따리는돌이되여도
내마음은 다시넷두리의
더러힌거리로 고개를돌리지안나니
써나는벗들아 고쳐의홍쳐이는—
그러나 맷고싼는듯한
곳은나의참마음을보라

벗이여가려든 말업시평안히가거라
추업부의선우숨가튼 상스러운
안것다는파컨항의 인정을싼코
시들고매마른 이망울진실히
단연히색리치고 써나가거라

허화로운거리로 달뜬벗을보내기의
시달픈눈물의 몟번이나흐득엿스나
원망도말고 저주도안나니
이써의회사로옴이 내맘을붓들고
애닷는님의눈물이 내령을를리려도
로내마음은 허금스러운거름을오
큰소리칠 그날 그쌔그쌔으로
서름지는 뢰쩍을벗삼아
피폐한다리를 쉴고
황허한사막의 거리를지나
오히려 무준히나는
참다운 인생의길을가랴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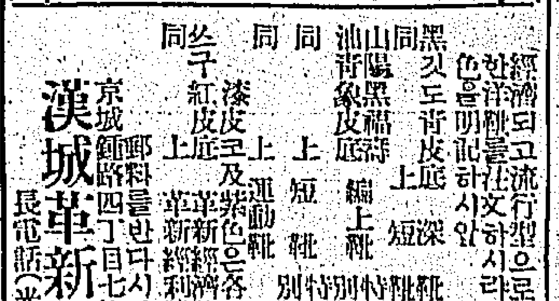
淋病新藥 ツヨール (쓰요-루)

淋菌殺滅力의優秀
利尿作用의卓越
胃腸障害의絶無
以上의모든點에
잇서서 他藥의追從
을許하기不能한治
淋病新藥이외다

定價 五十錠 十二錠 … (說明書進呈)

明正製藥株式會社
東京日本橋 振替東京一九七二九
同大阪出張所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振替大阪二〇七〇九
(各藥店販賣)

◇本部物品豊富散賣三足以上郵料自擔◇
十足以上特約販賣에는一割引이有함


附屬品無代進呈
遠近代金引換함

經濟되고流行型으로特製한洋靴를注文하시라면必히色을明記하시압 (內容見品及形紙)

黑깃도靑皮底 深	短靴	九圓五十錢
同 上底	編上靴	八圓五十錢
山陽黑福皮底	編上靴 特製	八圓
油靑象皮底	上 短靴 別製	七圓五十錢
同	上 短靴 特製	六圓五十錢
同	上 運動靴 別製	六圓
漆皮及紫色	各式	五圓五十錢
쓰루 紅皮底	革新紳士靴	三圓加七十錢
同 上	革新利靴	一圓四十錢

郵料를반다시보내시요
京城鍾路四丁目七十番地
漢城革新製靴部 長電話(光)一八一〇番

自十二月二日 至卅一日
歲末景品付賣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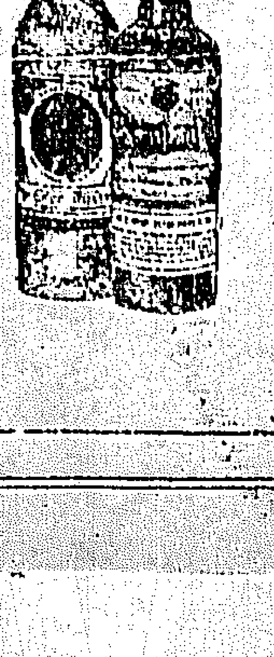
◇フットボール(チャンピオン製) 東京製品正式(最上皮革製)
五號(中部並)一個에 金五,三〇
特五號 同 金五,八〇
六號 同 金六,五〇
特六號 同 金七,〇〇
◇フットボール用靴 最新式特製品 一足에 金九,八〇
◇バスケットボール 東京製(最上皮革製品) 正式(中部並) 一個에 金七,八〇
◇バレーボール 東京製(最上皮革製品)(中部並) 一個에 金七,五〇 同 金八,〇〇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〇六番地
京城運動具商會
電話本局 二〇一四番 二五一九番 振替京城一〇六八一番 2726

卓越한品質
メリーミルク (메리-밀크)
▼비타민B의始祖鈴木博士推奬
▼第二回藥劑博覽會大賞受領
▼大正十四年四月理化學硏究所發表
一、메리-밀크는舶來品을凌駕함

製造元 明治製藥株式會社
M5

健康의階段
赤玉 食前의一杯는
虛弱한身體를健康으로引導하는一步
어느틈에病을去하고 心身을强케함
적옥포트와인
赤玉ポートワイン



身體를健强케하는 葡萄酒는赤玉
B22

高普期成은 私立學校로計劃

洪城教育役員會決議

五六個星霜을두고問題中에잇던 洪城高等普通學校는洪城地方에 重大問題가되며一般의輿論이沸騰한中에잇더니去二十四日午後二時에洪城敎育會를그會事務所에서役員會를開하고副會長趙成儀氏가議長으로諸般을決議하엿다는데其內容은于先私立中學校를計劃하야永久完全한學校를되도록하자는바가其目的으로決議되얏다는데그大略은如左하다고(洪城)

◇決議

一、敎育會法人登錄에委員으로金泳始朴勝玉兩氏를選定
二、私立中學校를設立키로함
三、同校舍를從速히建築키로함
四、當局에認可交涉키로함(二三四條에關한執行委員은李夏永金泳始朴勝玉朴周淳金愼東李仁鉉崔斗煥李宗命(顧問))
五、期成會別途貸金回收할일
六、湖西銀行株金事件
七、金融組合臨時貯金을定期預金으로固定할일
八、雜事

發起會 禁止顚末

釜山서開催할 慶南靑年聯盟

旣報=慶南靑年聯盟發起會는豫定과如히去二十五日釜山에서開催할터인바去二十三日부터慶南各團體代議員은陸續히釜山에集中하여서同大會의諸般準備를整頓하고當日만苦待하던中同二十四日에慶南警察部로부터突然히禁止를當하고各氏가極度로緊張한同準備會에서는安浚、金鍾健金根培三氏를委員으로選定하야慶南警察部에그理由를質問하엿는데同警察部에서는理論上要領不得한말만하고不許可의理由를示하기를左와如한曖昧의答辯을하엿다더라

一、外事派와北風派가爭鬪할憂慮가잇는것
二、時期尙早한것
三、不穩하겟다는것

右와如한警察의處置에對하야各代議員들은極度로憤慨하야卽時代議員側으로金昇?、孫相秀、申鉉鼎、金根培四氏를다시派遣하야質問한즉또한要領을把捉하지못할뿐아니라[illegible]員側에서는一邊警察의無理를[illegible]하는同時에最後의對策을講究하엿다고

空氣緊張한 代議員懇談會

同二十五日午後二時半에同代議員六十餘名은釜山第一水晶學校內에서懇談會를開催한後司會에安浚君이書記에金泳圭君이選定되고經過報告가잇고第二回警察部質問顚末을金昇?君이報告한後孫相秀、金根培兩氏의補充報告가잇는데臨場警官의注意로[illegible]一般의注目이더욱緊張하엿는데[illegible]告가잇고第二回[illegible]이報告하고[illegible]土客의懇談이잇는中各團體狀況報告가잇슨후愉快한音樂으로散會하엿다고(釜山)

日新靑年創立

市外玄石里서

市外玄石里有志靑年諸氏는恒常그洞里에靑年團體가업슴을遺憾으로지내든中去番大洪水時에尤히靑年團體가업서困難히지냇슴을늣기여李晩宰外諸氏의發起로日新靑年會를組織하고지난二十五日에創立總會를開하엿다는데그任員은如左하다고(高陽)

◇任員

▲會長徐丙熙▲副會長李晩宰▲總務崔寧俶▲事業部長韓宗錫 同幹事徐廷鎭▲文藝部長張基萬 同幹事李鴻振▲運動部長張吉鎬 同幹事李圭燮▲講演部長具滋昆 同幹事朴容九▲會計徐廷圓 張基敬▲書記咸斗榮 崔昌燮

同志團創立

濟州城山浦서

濟州島旌義面城山浦에잇는여러靑年이모히여同志團이라하는團體를組織하고一般社會事業에貢獻하며特히民衆思想을啓發하며一般救濟事業에努力한다는데綱領及任員은左와如하다고(濟州)

◇綱領

一、吾人은團結的組織으로써[illegible]

勞働夜學設立 江原道

[illegible]郡縣南面浦岩里有志[illegible]諸氏는勞働하는兒童이배울곳이업서[illegible]遺憾으로[illegible]勞働夜學을設立하고同里[illegible]부터生徒四十餘名을募集하야講師는[illegible]本人[illegible]兩氏의熱誠으로無料敎授한다고(襄陽)

新山私塾復興

新山勇進會事業

濟州島旌義面新山里에잇는勇進會에서는一般社會事業에貢獻이만흔바新山私塾學校敎育의不完全함을慨嘆하야本里勇進會에서敎員兩人을招聘하야刷新을圖하는바將來發展의希望이만타하며生徒의數는아직六十名이나將次增加될形便이며勇進會의任員은左와如하다고(城山)

◇任員

▲會長康仁巾▲總務姜琫龍▲書記姜泰順

五週紀念活寫

本支局後援으로 三日間大盛況

群山府內에散在한一百五十餘朝鮮人飮食店營業者를網羅하야組織된群山朝鮮人飮食店營業組合은創立以來五週年을맛는同時그紀念키爲하야京城團成社로부터名聲이藉藉하던「籠中鳥」前後篇十五卷을當地群山座에서本報支局後援으로上場하야連三日間晝夜로開催하엿는바大盛況을呈하엿는바卽席에서[illegible]同組合員中으로義捐金이三百餘圓에達하엿다고(群山)

三十六萬千餘圓

平壤今年火災損害額

平壤府內에發生된今年火災統計는今月二十六日外지總計九十五回에損害額이三十六萬一千二百六十八圓餘인데昨年에比하야同數는十八回가減少되엿스나損害額은十五萬一千百餘圓이增加되엿다하며人畜死傷에對하야는昨年은全無이더니今年에는死亡者가一名負傷者가六名이오[illegible]豚十三頭가燒死하엿다고(平壤)

獐島夜學設立 定州郡

海山面獐島洞에서는無産兒童과農民을敎授하기爲하야洞民有志들이會議한結果當地三山學術講習所[illegible]

安興夜學盛況 定州郡

新安面安興洞에서는無産兒童을救濟하기爲하야有志承啓璉田炳周承履泰承彥諸氏의誠心努力으로晝夜學을準備하야講師田晢鎬氏敎授로晝學生이三十名에達하고夜學生이二十餘名인바그中承晶默外五人이撤夜로終學에苦心勤勉한다고(定州)

舍人普校學藝 平南順川郡

川郡舍人普校에서는來一月一日當校敎室에서兒童學藝會를開催한다는데各地夜學生들도만히와서觀覽하기를바란다고(舍人)

金泉各校放學 金泉郡

內各公私立學校에서는左記日割로各其冬期放學式을擧行하엿다고(金泉)

學 校 名	日割
私立金陵學院	十二月二十五日
同聖義學院	同上
同興山面崇德講習會	同上
金泉公立普通學校	同上
開寧公立普通學校	同上
牙浦公立普通學校	同上
金烏山公立普通學校	同上
果谷公立普通學校	同上
知禮公立普通學校	同上
鳳溪公立普通學校	同上
牙川公立普通學校	同上
鳳溪公普金陵分校	同上

乙丑靑年革新

會長制를委員制로

慶北義城郡點谷面에잇는乙丑靑年會에서는去二十日午前十一時當地普校講堂에서臨時總會를開하엿다는데前會規約을改定하고會長制를委員制로變更하는同時에萬般討議를맛치고委員十人을選擧한後午後三時에至하야無事閉會하엿다는데綱領과決議事項과및委員으로選擧된이는左와如하다고(義城)

◇綱領

一、我等은土臺를努力靑年에두는同時文化運動을促進함
一、我等은相互扶助의原則으로[illegible]

馬山署犯罪者

十一個月동안

馬山警察署에서大正十四年一月一日부터同十一月末日外지犯罪者檢擧件數統計及犯名別은如左하다고(馬山)

罪名	件數
放火	一二
橫領	六○
傷害	二二
竊盜	三二
賭博	四二

沙里院市 棉花販賣總額

成績逐年良好

黃海道沙里院市에서去二十五日(陰十一月十日)市까지今年內에販賣된棉花가總二萬六千斤에金額이九千七百四圓이라는데今年부터는共同販賣를廢止한故로他郡에比하면高價인바압흐로棉作을一層獎勵할目的으로[illegible]例年에比하면二百五十萬斤가增收되엿다는데[illegible]▲米國六○▲印度一六▲埃及七▲中國[illegible]▲其他[illegible](沙里院)

江原道評議會

第八日

江原道評議會第八日은二十四日上午十一時에開會를宣하고議員으로부터邑內公會에關한意見書를提出하니左와如하더라

◇沈相嘉氏(春川) 一은新延江의架橋는何時든지長久히堅固한計劃이아니오니速히鐵橋를架設하고其二는京春間에鐵道敷設을希望한다하야오其三은春川으로부터東海岸을貫通할鐵道敷設을要求함에滿場一致로可決되고氏는다시共同團體의統一制를要求하니郡農會畜産森林組合等各團體를統一하여달나고

◇小西內務部長 아는當局에서方今施行하라하는것이오니特別히提議할必要가업다고

◇金永佑氏(伊川) 二十四番議員으로부터各團統一을關하엿스나本員은오히려畜産組合이라는것은廢止를하여주시오그實은人民에게害는잇슬지언정利益은無한機關이라고結局異論이蜂起하여失敗에歸하엿고

◇沈相嘉氏(春川) 一府民窟를實施키하야民間으로부터各種願書를提出時에敏活히處理하야달나고從多數로可決되다

◇金東和氏(華川) 公普校에學級不足으로男女共學은地方習慣上女子敎育에만흔支障이되니女子普學校를增設하여달나고要求함에多數로可決되고

◇田中鶴一氏(江陵) 本員의提案은一은江陵邑南大川에堤防修築과其二旌善道路改築과其三三陟津樂港을顧한바三件에以上三條를從多數로採決되매旌善道路問題만可決되고三條는否決되엿다

◇金英根氏(金化) 道評議會는諮問機關으로지나오지마는압흐로는議決機關으로곳쳐달나고滿場一致로可決되다

◇議長은下午一時三十分에再開할것을宣하고停會하니零時二十分이더라

第八日 (續)

同日下午二時에議長의開會를宣하고會期日을一日延長하자는動議가잇섯스나紛走한결과로되도록은今日內에散會를하자고

◇金源祖氏(三陟) 本員은아래와갓흔三條를希望하옵니다其一은海岸線鐵道敷設과其二는金融組合의增設과其三은土木技手를每郡一人式配置하여달나고從多數로可決되엿다

◇諸議員은各條目에따로따로秋野新助氏(春川)今年大水害에被害된水利組合이나個人經營의水利事業이라도補助하여달나고함에多數로可決되고

◇南相鶴氏(春川) 本員의提議는右와如합니다其一은春川農業學校學年延長의件其二는關東月報擴張의件

◇議長은以上三條의可否를問하니多數로可決되엿고

◇白木原勘十郞氏(通川) 地方費로서庫底港을修築하여달나고異議업시可決되다

◇張仁煥氏(蔚珍) 改良한農具使用獎勵의補助를願한다고多數로可決되다

◇高運河氏(鐵原) 本道는農産地임으로春川農業學校一個所로는不及이더니農産實業學校設置를希望함에多數로可決되엿고

◇高運河氏(鐵原) 本員은本道發展을爲하야第一莫大한支障이되옵는것은萬般事業에指導機關인本道廳이交通上으로位置가不適當한데잇사와發展이너무도遲緩케되오니適合한곳을擇하야道廳移轉을希望하옵니다라고말이맛나기前에熱心議員들은로부터要求한道廳移轉問題은萬萬不當하니다그가成番論을基礎로하여北과平北의例를드러말하니각平의移轉은國境守備關係이고

其他[illegible]

各地郵便怠慢

麻浦郵便 市內麻浦郵便

所配達區인東幕大井洞에잇는郵便配達人은여러날지가十餘日이되여도다시달지를아니하여는과[illegible]

文川郵便 咸南文川郵便

[illegible]

淳昌郵便 全北淳昌郡郵便

[illegible]

各地方의 크리쓰마쓰

群山

지난二十五日夜九時부터各地에서擧行할바가치群山北部敎會에서도盛大한크리쓰마쓰가定刻前부터밀물듯이信徒와其他人士가無慮千五百의滿場으로天氣도漸少年少女들의詠歌와天使가下降[illegible]

馬山

馬山基督敎會에서는今年크리쓰마쓰祝賀會를左記와如히盛大하게開催하엿다고(馬山)

二十四日下午七時부터馬山耶蘇敎幼年主日學校主催로文昌禮拜堂內에서音樂及演劇會를開催하엿고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馬山敎會主催로文昌禮拜堂內에서說敎會를開催하엿고二十五日下午七時부터馬山耶[illegible]

安岳

黃海道安岳邑內耶蘇敎會에서는去二十五日下午七時부터「크리쓰마쓰」祝賀를[illegible]

清道

慶北清道郡城內長老敎會에서는[illegible]

烏山

水原郡城湖面烏山美以美敎會에서지난二十五日[illegible]

義州

義州邑內에잇는東西[illegible]

寧邊

寧邊長老派敎會와監理敎會[illegible]

和順

全南和順耶蘇敎會에서는[illegible]

東萊

市外東萊禮拜堂에서는[illegible]

元山靑聯臨總

元山靑年聯合會에서는向者創立大會時에未盡한事項을討議하기爲하야[illegible]

嶺南地方

●主禮兒童靑年會組織 慶北漆谷郡北安面[illegible]

●新聞記者招宴 澤田慶北知事는二十四日夜料亭三笑에서在邱各新聞記者를招待하야忘年會를開하엿다고(大邱)

●馬山各校放學 馬山府內에서는去二十五日에冬季放學式을擧行한學校는如左하다고(馬山)

◇任員
▲會長[illegible]▲敎育部長[illegible]

湖南地方

[illegible]

◇地方人事消息◇

[illegible]

東北地方

[illegible]

海西地方

[illegible]

新春懸賞課題

十字말수수격기

〔一名크로쓰워드퍼즐〕

詳細規程은新年號에發表

等級、人員及懸賞種目

等級	懸賞		人員
一等當選	蓄音機 一臺	價百圓 소리판寄贈	一名
二等當選	金時計 一個	價二十五圓 十八金腕卷	二名
三等當選	萬年筆 一柄	價五圓 十四金펜付	五名
四等當選	全科辭典 一部	價一圓七十錢 大阪每日新聞編	二十名
五等當選	新聞購讀券	一個月分 本報購讀料	五百名

東亞日報社懸賞係

應募는本報讀者에限함

春香

【第九十回】 春 臣 (四)

[illegible]

質疑應答

[illegible]